

崑堂 李象秀의 「唐文評」 연구

申在湜*

- | | |
|--------------------|--------------------|
| I. 머리말 | IV. 崑堂의 創作과 批評의 실제 |
| II. 崑堂 문학의 연원 | V. 맺음말 |
| III. 「唐文評」의 구성과 특징 | |

• 국문초록

朝鮮後期 文學史를 이해하자면 그 핵심이 되는 唐宋派 文學의 수용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李象秀는 조선후기 당송파 계열의 문장가이다. 그는 農巖系 文人과의 교유를 통해 당송파의 文學論을 습득하여 독창적인 문학론을 창안하고 독서와 작문에 실천한다. 특히 「唐文評」(『崑堂集』 권20)은 이상수의 文學觀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당송파의 전범이 되는 唐나라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창작에 동원된 논지와 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문학비평인데, 당송파의 문학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이상수 문학론의 정수가 반영되어 있다.

이상수 비평의 특징은 창작에 동원된 간결한 구성, 엄선된 제재, 컨텍스트 파악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간결한 구성이란 최소한의 언어량으로 최대한의 묘사를 해내는 것으로, 제재의 엄선, 유기적 조직, 정리된 표현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당송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엄선된 제재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창작의 단서가 되는 주제인데, 주로 ‘국가의 치세’와 ‘군주의 덕망’에 유용한 내용으로 儒家의 修己治人에서 나온 것이다. 컨텍스트란 텍스트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맥락으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관건이다. 이러한 컨텍스트의 파악은 폭넓은 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여기서 일정한 법도가 있다고 여겨서 그 법도를 습득하면 우수한 작품이 된다는 논리가 당송파의 문학론을 계승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古文의 범주에 對偶文을 포함시켜 그 중요도를 높이고, 당송파의 창작론을 비평에 적용시켜 컨텍스트의 파악에 바탕한 텍스트의 분석을 비평의 단서로 삼은 것은 이상수의 진일보한 창작과 비평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朝鮮後期, 文學, 唐宋派, 農巖系, 李象秀, 唐文評, 創作批評論

I. 머리말

조선후기 문학의 특징으로 산문 창작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이는 明代 문학이론의 수용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唐宋派의 문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農巖 金昌協이 수용한 이래로 구한말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문학을 이해하자면 그 핵심이 되는 당송파 문학의 수용사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嵒堂 李象秀(1820~1882)는 조선후기 당송파 계열의 문장가이다. 그는 農巖系 문인과의 교유를 통해 당송파의 문학론을 습득하여 독창적인 문학론을 창안하고 독서와 작문에 실천한다. 특히 「唐文評」(『嵒堂集』 권20)은 이상수의 문학관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唐宋派의 전범이 되는 당나라의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논지와 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문학비평으로, 당송파의 문학론을 발전시킨 이상수 문학론의 정수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唐文評」을 통해 이상수의 문학관과 그 양상을 살피는 작업은 이상수 문학의 단면을 살피는 것 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후기 문단의 주류인 당송파 문학의 계승과 발전 양상을 검토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수의 문학 연구는 주로 산수유기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이향배와 이현호가 이상수 문학의 특징을 讀書作文論이라 정의하고, 그 실천사례로 사기 비평을 다루었다. 다만 이상수 문학론의 근원인 당송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¹⁾

이에 본고에서는 이상수 문학론 및 비평과 창작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어당 문학의 연원을 점검하고, 연구대상인 「唐文評」의 구성을 파악한 뒤, 이상수 비평과 창작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강전섭, 「금강별곡(병인본)에 대하여」, 『한국학보』 10, 일지사, 1978; 「금강별곡의 작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7, 국어국문학회, 1982; 김기영, 「嵒堂 李象秀의 금강별곡 연구」,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학회, 1995; 김용남, 「李象秀의 속리산유기에 드러나는 의론의 강화와 그 특징」, 『고전문화와 교육』 17, 한국고전문화교육학회, 2009; 이향배, 「嵒堂 李象秀의 산문비평론 연구」, 『어문연구』 56, 어문연구학회, 2009; 이현호, 「嵒堂 李象秀의 사기 평술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Ⅱ. 崑堂 문학의 연원

이상수는 19세기 조선 중앙문단의 저명한 문장가이다. 그는 몰락한 老論 湖論系 출신으로 과거 공부와 생계 유지를 위해 문장력의 향상을 갈망하였다. 서울 문사들과의 교유는 이를 충족시킬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유년기 때 부친인 李演周로부터 詩文을 배운 이후에 소년기 때 白周鎭 집안의 학동, 29세 때 尹定鉉 집안의 가정교사, 32세 때 유배객 金正禧의 방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울의 명사들과 교유하고 다양한 문학서적을 접하면서 중앙에서 유행하던 문학론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독창적인 문학론을 창안하고 독서와 작문에 실천하여 문장력과 독해력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30세 무렵부터 중앙 문단의 호평을 받고, 이름난 문장가로 손꼽히게 된다.²⁾

이상수가 습득한 문학론은 무엇인가. 교유한 인물에 그 단서가 있다. 이연주, 윤정현, 김정희 등은 노론으로, 農巖系의 영향을 받은 문인들이다.³⁾ 당송파는 무엇인가. 당송파는 唐·宋代의 저명한 산문 작가를 산문의 전범으로 삼자고 주장한 明代의 문학유파이다. 唐宋八大家의 산문에 일정한 법도가 있다고 여겨서 그 법도를 습득하면 좋은 문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송파의 법도는 무엇인가.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의 방법, 즉 문장의 안배, 진술의 순서, 맥락의 흐름, 단락의 연결 등 유기성, 일관성, 연계성을 지닌 편장구자의 체제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⁴⁾ 이 수사학은 宋代의 呂祖謙의 『古文關鍵』 이래로 발전하여 왔는데, 특히 문장의 구성을 중시하는 八股文 등 明代의 과거문에서 주로 활용된다. 따라서 당송파 계열의 문학서가 중국과 한국을 막론하고 과거문 학습서로 애용된 것이다.⁵⁾

이상수의 당송파 문학론 수용은 문장에 대한 담론과 학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그는 김정희와의 담론을 기록한 「北靑問答」에서 劉勰의 『文心雕龍』, 陸機의 『文賦』, 鍾嶸의 『詩品』, 蕭統의 『文選』을 열독한 흔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⁶⁾ ‘韓愈

2) 김채식, 「崑堂 李象秀의 山水論과 「東行山水記」 분석」,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1, 8~19면 참고.

3) 김채식, 앞의 2001 논문, 26~38면 참고.

4) 윤지훈, 「18世紀 農巖系 文人의 文學論과 批評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169~173면 참고.

5)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35~36면 참고.

6) 이상수, 『崑堂先生文集』 권20, 「北靑問答(壬子)」, “文筆之辨, 見於昭明太子文選敍 …… 鍾嶸詩品,

이후로 歐陽修가 古文의嫡傳이고 曾鞏과 王安石이 고문의 肖孫이다. 明代의 歸有光是 구양수와 증공의 범통을 계승하였다.'고 中國散學史를 정의한 바 있다.⁷⁾ 주지하다시피 한유와 구양수는 당송팔대가의 대표 작가이고 귀유광은 당송파의 대표 문인인데, 그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이다. 또한 그는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 林雲銘의 『古文析義』, 錢謙益의 『初學集』, 朱子和 程子の 문학비평 등을 열독하여 그 이론을 습득하고⁸⁾ 작문과 비평에 활용해서 唐나라 문장을 비평한 「唐文評」, 司馬遷의 『史記』의 문장을 비평한 「貨殖傳評」과 「酷吏傳評」, 諸葛亮的 <出師表>와 陶淵明的 <歸去來辭>를 분석한 「出師表句解」와 「歸去來辭句解」, 수사학적 측면에서 『孟子』의 문장을 분석한 「孟子筆程」 등을 지었다. 이 글들을 살펴보면 농암계의 법도, 즉 篇章句字의 유기적 구성을 근거로 작품을 분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모곤과 임운명은 당송파의 대표 문인이고 전겸익은 중송파로서 당송파와 공안파의 영향을 받은 인물인데, 『唐宋八大家文鈔』, 『古文析義』, 『初學集』 등은 그들의 대표 저술이다. 農巖 金昌協이 이러한 당송파의 논리를 수용해 산문비평에 활용한 바 있는데, 이상수 역시 창작과 비평에서 이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상수의 문학론이 당송파의 전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상수는 古文의 범주를 재정의한다. 對偶文까지 고문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런 견해는 전에 없던 것이다. 당송파가 일찍이 구성의 법도를 지닌 문장을 선호한 바 있지만 대우문을 고문에 포함시킨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수는 고전을 근거로 문장의 개념을 정의한 바, 대우문에 속하는 작품을 文이라 하고 대우문이 아닌 작품을 筆이라 하고는 대우문이 고문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⁹⁾

後人駁議蜂起, 而其實未易疵毀 …… 文心雕龍, 是異樣文字, 當平生誦之. 陸機文賦亦然.”

7)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北靑問答(壬子)」, “古文者昌黎後, 歐陽公爲嫡傳, 曾南豐王荊公, 亦其肖孫也. 東坡如天人變化, 其實不得與於正宗. 元人未嘗無大方而無聞焉. 至皇明, 歸震川直接虹橋, 上紹歐曾之統.”

8)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鹿門已貶其儒墨相混之矣 …… 鹿門以爲韓公堂堂之陣整整之旗 …… 鹿門所以推爲第一.”;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2, 「歸去來辭句解(己酉)」, “林西仲曰”;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2, 「出師表句解(己酉)」, “林云”;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北靑問答(壬子)」, “乾隆最惡牧齋, 何也?”;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程子謂周成王賜佑禽, 以天子禮樂受賜, 皆非也. …… 朱子已疑其說.”; 『古文析義』는 林雲銘이 저술한 서적으로 先秦부터 淸初까지 시기의 중국 산문을 가려 뽑고 注와 評을 붙인 古文選集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리리 增定古文析義 古貴3748-2 초록 참조.

대우문까지 고문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곧 古文의 범주가 확대됨을 의미한다.¹⁰⁾ 이상수의 이러한 관점은 「唐文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奏議類 산문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대우문의 경우 주의류 산문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문의 범주에 대우문을 포함시켜 그 중요도를 높인 것이다. 으레 과거문에서 실용문에 속하는 대우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우문을 고문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대우문 학습의 중요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수는 독서와 작문의 맥락이 같다고 여겼다. 즉 독서에 능하려면 작문에 능해야 하고, 작문에 능하려면 독서에 능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런 견해 역시 전에 없던 것이다. 당송파가 일찍이 작문에 능하려면 그 전범이 되는 당송문의 학습을 통해 그 구성의 법도를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모든 독서에 적용시킨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수는 작자가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법도에 맞는 문장을 구성하였으니, 그 구성의 법도를 역으로 적용해 작품을 분석하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 작자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¹²⁾ 그는 여기에 덧붙여 컨텍스트의 이해를 강조한다.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이를 둘러싼 상황이나 맥락을 꿰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폭넓은 독서력의 결과이다. 즉 폭넓은 독서가 독해와 비평 뿐 아니라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비평의 준거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다.¹³⁾

9) 이상수, 『晤堂先生文集』 권20, 「北靑問答(壬子)」, 「『周禮』「考工記」, 靑與白爲文, 白與黑爲章. 文者皆五色相宣之謂也. 故古人文筆異稱. 自孔子文言, 皆用對偶文也. …… 文筆之辨, 見於昭明太子文選. 若八大家之抄, 則鹿門本爲舉子八股文也. 以舉業爲時文, 故自韓柳以下, 目爲古文, 古文之稱, 遂止於八家. 今人以駢儷, 例不齒於古文, 誤也.”

10) 이항배, 「晤堂 李象秀의 散文批評論 研究」, 『語文研究』 56, 어문연구학회, 2008, 199~204면 참조.

11) 이항배, 앞의 2008 논문, 195~199면 참조.

12) 이상수, 『晤堂先生文集』 권17, 「讀書二則(癸酉)」, “讀書而後能作文, 固矣. 余謂作文而後乃能讀書. 何也. 凡文字皆有法, 只得其辭而不曉其法, 則不知古人妙處, 是謂村學究. 何謂文法也. 章有章法, 句有句法, 字有字法. 六經不可以法論, 然後世作文無不由是而出, 自左莊班馬, 至韓柳歐蘇, 其法始備, 規範尺度森然不苟. 讀之者先求宗旨, 次尋結構, 結構不尋, 則宗旨肯綮之所在亦不出, 鋪置次第, 脈理段落, 支分節解, 瞭然昭晰, 乃可以貫其全體, 而作者妙處始露.”

13) 이상수, 『晤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梁肅(西伯受命稱王議): 駁太史公之誤, 可謂有識. 又引湯武革命及武王未受命二文, 以證文王未嘗受命, 尤爲明確. 此說, 本自不經注家, 動輒稱之, 以爲文王斷虞芮之訟, 是歲爲受命之年, 駁之是矣.”; 「楊夔(原晉亂說): 以江左之不振, 專責導亮, 是大

이처럼 고문의 범주에 對偶文을 포함시켜 그 중요도를 높이고, 당송파의 창작론을 비평에 적용시켜 컨텍스트의 파악에 바탕한 텍스트의 분석을 비평의 단서로 삼은 것은 이상수의 진일보한 창작과 비평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Ⅲ. 「唐文評」의 구성과 특징

이상수의 唐宋派 문학론 수용에 관한 자료로 『嵒唐先生文集』 권20에 수록된 「唐文評」을 들 수 있다. 이는 당송파의 전범이 되는 당나라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창작에 동원된 논지와 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문학비평으로, 당송파의 문학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이상수 문학론의 정수가 반영되어 있다. 이상수의 「唐文評」을 분석하려면 그 구성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상수가 「唐文評」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작가와 작품을 유형에 따라 정리해보았다. 이하는 대상 작가들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표이다.¹⁴⁾

〈표 1〉 「唐文評」 작가별

	작가	생몰	작품
1	高郢	740~811	魯議
2	高適	706~765	後漢賊臣董卓廟議
3	權德輿	759~818	唐丞相金紫光祿大夫守太保致仕贈太傅岐國公杜公墓誌銘, 兩漢辨亡論, 酷吏傳議
4	羅隱	833~910	英雄之言
5	駱賓王	640~684	討武氏檄
6	盧肇	818~882	海潮賦

見識.”; “以政在黃皓, 權歸仲達, 不見帷幄, 爲三國先亡後滅之證, 深中事理. 非獨文章爲好, 乃經國之識.”; “〈岐公淮南遺愛碑銘〉: …… 唐宋宰相碑版, 皆當與正史本傳參看, 可以互相考覽.”; “杜子美〈三大賦〉: …… 見其讀書破萬卷, 光焰不可當.”

- 14) 李象秀가 열독한 唐나라 문학선집이 정확히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본고에서는 『欽定全唐文』(董誥 等, 『續修四庫全書』 1634~1650)을 참고한다. 李象秀의 「唐文評」에는 작품명이 축약되어 있다. 『欽定全唐文』을 참고해 작품명을 복원한다.

7	段文昌	773~835	平淮西碑銘
8	杜牧	803~852	書韓吏部孔子廟碑, 戰論, 守論, 杜秋娘詩, 罪言, 原十六衛
9	杜甫	712~770	三大賦
10	馬周	601~648	請崇節儉及制諸王疏
11	白居易	772~846	晉諡恭世子議
12	范傳正	?~?	李太白廟碑
13	尙馳	?~?	諸葛武侯碑銘
14	尙衡	?~?	文道元龜
15	常仲儒	?~?	河中府新修文宣王廟碑
16	舒元興	791~835	上論貢士書
17	徐惠	627~650	諫太宗息兵罷役疏
18	蕭穎士	707~758	伐櫻桃樹賦
19	蘇頲	670~727	夷齊四皓優劣論
20	孫邨	?~?	春秋無賢臣論
21	孫樵	晚唐	讀開元雜報, 書褒城驛壁
22	辛替否	中宗年間	諫造金仙玉真二觀疏
23	楊夔	晚唐	原晉亂說
24	梁肅	752~793	梁高士碣, 西伯受命稱王議
25	元稹	779~831	杜子美墓誌銘
26	呂溫	772~811	號州三堂記
27	王義方	615~669	彈李義府疏
28	劉蕡	?~842	對策
29	柳宗元	773~819	維論, 天說, 貞符
30	柳伉	?~?	請誅程元振疏
31	陸龜蒙	?~881	蠹化
32	陸長源	?~799	上宰相書
33	陸贄	754~805	請勿置瓊林大盈二庫狀
34	李翱	772~841	復性書
35	李德裕	787~850	張辟疆論, 三國論
36	李白	701~762	明堂賦

37	李翰	?~?	三名臣論
38	李華	715~778	苗太保晉卿墓志銘, 含元殿賦
39	張九齡	678~740	後漢徐徵君碣
40	張說	667~730	姚梁公碑銘
41	張謂	?~778	虞帝廟碑銘
42	程浩	?~?	扶風縣文宣王廟記
43	陳黯	805~877	答問諫者
44	皮日休	838~883	文仲子碑, 漢斬丁公論, 吳季札論
45	韓愈	768~824	處州孔子廟碑, 雜說, 琴操十首, 新修滕王閣記, 讀墨子, 進學解
46	皇甫湜	777~835	昌黎墓誌銘, 東晉元魏正閏論

다음은 대상 작품들을 문체별로 분류한 표이다.¹⁵⁾

〈표 2〉 「唐文評」 문체별

문체	작가 및 해당작품
碑誌類	銘: 張謂 「虞帝廟碑銘」, 尙馳 「諸葛武侯碑銘」, 張說 「姚梁公碑銘」, 段文昌 「平淮西碑銘」, 李華 「苗太保晉卿墓志銘」, 權德輿 「唐丞相金紫光祿大夫守太保致仕贈太傅岐國公杜公墓誌銘」, 皇甫湜 「昌黎墓誌銘」, 元稹 「杜子美墓誌銘」 碑: 韓愈 「處州孔子廟碑」, 常仲儒 「河中府新修文宣王廟碑」, 杜牧 「書韓吏部孔子廟碑」, 皮日休 「文仲子碑」, 范傳正 「李太白廟碑」 碣: 梁肅 「梁高士碣」, 張九齡 「後漢徐徵君碣」
論辨類	論: 皇甫湜 「東晉元魏正閏論」, 李翰 「三名臣論」, 李德裕 「三國論」, 「張辟疆論」, 皮日休 「漢斬丁公論」, 「吳季札論」, 蘇頌 「夷齊四皓優劣論」, 權德輿 「兩漢辨亡論」, 柳宗元 「維論」, 孫邵 「春秋無賢臣論」, 杜牧 「戰論」, 「守論」 議: 梁肅 「西伯受命稱王議」, 白居易 「晉諡恭世子議」, 高郢 「魯議」, 權德輿 「酷吏傳議」, 高適 「後漢賊臣董卓廟議」 說: 韓愈 「雜說」, 柳宗元 「天說」, 楊夔 「原晉亂說」 解: 韓愈 「進學解」 原: 杜牧 「原十六衛」 기타: 李翱 「復性書」, 陳黯 「答問諫者」

15) 清나라 고문가 姚鼐(1732~1815)의 『古文辭類纂』의 13분류를 참고한다. 姚鼐 編纂 王文濡 校注, 『(音注評校)古文辭類纂』, 臺灣中華書局, 1973 참고.

奏議類	疏: 馬周 「請崇節儉及制諸王疏」, 徐惠 「諫太宗息兵罷役疏」, 辛替否 「諫造金仙玉真二觀疏」, 王義方 「彈李義府疏」, 柳伉 「請誅程元振疏」 狀: 陸贄 「請勿置瓊林大盈二庫狀」 策: 劉蕡 「對策」 符: 柳宗元 「貞符」 檄: 駱賓王 「討武氏檄」 기타: 杜牧 「罪言」
雜記類	記: 呂溫 「號州三堂記」, 韓愈 「新修滕王閣記」, 程浩 「扶風縣文宣王廟記」 기타: 羅隱 「英雄之言」, 尚衡 「文道元龜」, 陸龜蒙 「蠹化」, 孫樵 「讀開元雜報」, 「書褒城驛壁」
書說類	書: 舒元興 「上論貢士書」, 陸長源 「上宰相書」
詩賦類	賦: 盧肇 「海潮賦」, 李華 「含元殿賦」, 李白 「明堂賦」, 杜甫 「三大賦」, 蕭穎士 「伐櫻桃樹賦」 詩: 韓愈 「琴操十首」, 杜牧 「杜秋娘詩」

唐宋八大家的 韓愈와 柳宗元을 포함해 무려 46명에 달하는 당나라 문인들이 지은 산문과 詩賦가 비평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대상이 된 인물이다. 주지하다시피 李白, 杜甫, 杜牧, 白居易, 駱賓王 등은 당나라의 대표시인인데, 이상수는 그들의 전공인 시가 아닌 산문에 주목한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산문으로 이름난 韓愈의 시를 비평하기도 하니, 여기서 이상수만의 독특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대상이 된 문체이다. 碑誌類, 論辨類, 奏議類, 雜記類, 書說類, 詩賦類 등 다양한 문체의 작품들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가운데 碑誌類, 論辨類, 奏議類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碑誌類, 論辨類, 奏議類 등은 실용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과거와 생계에 유용한 문장을 선호한 바 있다. 굳이 奏議類에 활용되는 對偶文을 고문에 포함시키면서 碑誌類, 論辨類, 奏議類 같은 실용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그렇다면 이상수 비평과 창작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嵒堂의 創作과 批評의 실제

1. 간결한 구성

이상수는 작품의 구성을 평가의 지표로 삼는다. 이는 碑誌文에 대한 비평에서 찾을 수 있다. 李華의 <唐丞相故太保贈太師韓國公苗公墓誌銘>에 대해 “총 334자이다. 韓國公 苗晉卿이 직접 난리를 겪고 태사의 지위에 오른 그 사정을 어찌 이루 다 서술할 수 있겠는가마는 이와 같이 簡淨하니 참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¹⁶⁾ 하여 ‘簡淨’ (‘簡嚴’이라고도 한다)이란 평어를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權德輿의 <唐丞相金紫光祿大夫守太保致仕贈太傅岐國公杜公墓誌銘>에 대한 비평 역시 그와 유사하다. “총 1043자이다. 장군과 재상을 넘나든 60여년의 삶이 겨우 짧은 편폭의 문장에 다 들어 있다.”¹⁷⁾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韓國公苗公墓誌銘>의 주인공인 苗晉卿(685~765)은 당나라의 저명한 재상이다. 그는 재상이 되기 전에 다양한 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修武縣尉, 奉先縣尉, 徐州司戶參軍, 萬年縣尉, 侍御史, 兵部員外郎, 吏部郎中, 中書舍人, 吏部侍郎, 安康太守, 魏郡太守, 河東太守, 工部尚書, 憲部尚書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비지문의 대상이 평생 겪은 행적은 무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석이라는 공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서술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비지문의 특성상 최소한의 언어량으로 최대한의 묘사를 해낼 수밖에 없다. 李華는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의 특징을 잡아낸다. 묘진경 생애의 핵심이 재상이라 판단하고 재상이 된 사연에 주목한 것이다. 묘진경이 재상이 된 계기는 안사의 난이었다. 그는 安史의 난으로 인하여 金州로 달아난 뒤 肅宗의 부름을 받아 재상에 임명된다. 이화는 바로 그 일화가 묘진경의 생애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이화는 묘진경의 수많은 행적을 생략함과 동시에 그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었다.¹⁸⁾ 이상수가 이화의 비지문을 극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¹⁹⁾

16)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李華〈苗太保晉卿墓誌銘〉: 凡三百三十有四字. 身經禍亂, 位登台司, 其事狀, 胡可勝書? 而直如此簡淨, 眞不可及.”

17)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權德輿〈杜岐公墓誌銘〉: 凡一千四十有三字, 出入將相六十餘年, 而其文不過小篇幅, 包涵却無不盡.”

18) 董誥 等, 『欽定全唐文』 권321, 〈唐丞相故太保贈太師韓國公苗公墓誌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간결한 구성을 해낼 수 있는가. 이상수에 의하면 이는 엄선된 제재와 유기적 조직에 달려 있다. 엄선된 제재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중심주제와 제재를 선정하는 것이다. 유기적 조직이란 중심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제재와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전편을 조직하는 것이다.

제재와의 유기성을 통해 중심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컨대 杜牧의 <書處州韓吏部孔子廟碑>의 경우 ‘李斯의 焚書’, ‘秦 始皇과 漢 武帝의 신선술 탐닉’, ‘梁 武帝의 불교 탐닉’ 등의 제재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孔子가 흥기하지 않았다면 이단의 풍속이 성행하고 중화의 문명이 무너졌을 것이다’는 중심주제를 끌어낸다.²⁰⁾ 또한 劉蕡의 <對賢良方正直言極諫策>의 경우 ‘學’이란 본령과 ‘春秋’라는 맥락을 가지고 ‘군주가 몸소 수양에 힘써야 교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심주제를 끌어낸다.²¹⁾

대조와 비교의 방식을 통해 중심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컨대 張謂의 <虞帝廟碑銘>의 경우 처음에 ‘요임금’이란 제재로 시작해 중간에 ‘순임금’이란 중심주제와 병렬서술하고 끝에 ‘순임금’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을 통해 ‘순임금’이란 중심주제를 부각시킨다.²²⁾ 이는 “군자의 일과 문사의 글을 세 등급으로 나눈 그 造意와 構辭 모두 좋다”²³⁾는 尚衡의 <文道元龜>의 비평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장의 기세를 통해 중심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컨대 韓愈의 <新修滕王閣記>에 대해 “마치 배가 三山에 가까이 다가가면 곧 바람이 몰아내는 듯하다. 그 모이고 흩어지는 사이에 서사가 펼쳐지는 것이 더 암담함을 느끼게 한다.”²⁴⁾는 이상수의 비평대로, 한유는 서두부터 ‘등왕각 방문에 대한 기대감과 그 기회를 놓친 아쉬움’의 패턴을 수차례 반복한다. 이는 정통 산문의 작법인 抑揚의 반복으로, 기대감이 揚에

19) 강명관, 『농암잡지평석』, 소명출판, 2007, 70~72면; 235면 참조.

20)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單提李斯之焚書, 秦皇漢武之淫於仙, 梁武之淫於佛, 明孔子不作, 則楊墨駢憤已降, 百家之徒, 廟貌血食, 十年一變法, 百年一改教, 反不如夷狄之俗, 一定而不易. 其造意, 却高別出機杼.”

21)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劉蕡<對策>: …… 其文以‘春秋’爲全篇脈絡, 學有本領, 亦可見矣.”

22)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張謂<虞帝廟碑銘>: 竝堯說下亦佳.”

23)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尚衡<文道元龜>: 分君子之事詞士之文爲三等. 其造意構辭, 皆好.”

24)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退之<新修滕王閣記>: 如舟近三山, 風輒引去, 其若合若離之際, 說得暢到, 尤覺黯然.”

속한다면 아쉬움은抑에 속한다. 이러한 역양의 반복이 아쉬운 느낌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낸다.²⁵⁾ 이와 같이 제재를 엄격하게 선별하고 구성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면 문장의 구성이 간결해지고 작품의 주제가 부각되는 효과가 일어난다. 거기에 핵심이 더 잘 드러나도록 중복되는 서술을 요약하는 과정을 더한다. 이것이 정리된 표현이다.

중복되는 서술은 어떻게 요약하는가? 이상수는 문장을 생략한 대표적 사례로 李華의 <苗太保晉卿墓志銘>의 “4군과 4도를 다스린 행적을 논하자면 백성을 위한 정사가 비록 뛰어났지만 공무에 관한 수완이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이 서술할 가치가 없다.[如牧四郡, 使四道, 在人爲政之絕跡, 於公能事之常格, 故不足敍.]”를 그 예로 든다.²⁶⁾ 훌륭한 목민관의 면모를 단 21자만 가지고 정리한 뒤 ‘故不足敍’는 단 4자로 끝맺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한유의 <處州孔子廟碑>가 있다. 이전 문인들의 경우 성인 공자를 칭송함에 온갖 수식어를 덧붙여 도리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반면 한유의 경우 “그 현명함이 요순보다 뛰어남은 이것이 그 효험일 것이다.[其賢過於堯舜者, 此其效歟.]”는 단 한 마디로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공자를 존송함을 표현해낸다. 이상수는 이를 가리켜 “가장 체를 얻었다. 모곤이 제일이라 추천한 이유이다”는 말로 극찬한다.²⁷⁾ 이러한 사례로 추정컨대 이상수의 요약이란 단지 불필요한 글자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중심주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압축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주제와 관련된 무한한 소재를 맞닥뜨린다. 하지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의 한도가 있어 전부 표현해내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한된 언어의 한도 내에서 특정한 주제를 강렬하게 드러내야 하는 간결화 작업을 해내야 한다. 이상수는 이러한 간결한 구성을 해내기 위해 엄선된 제재, 유기적 조직, 정리된 표현 등의 창작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25) 강명관, 앞의 2007 책, 19~22면 참조.

26)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李華〈苗太保晉卿墓志銘〉: …… 其曰: ‘如牧四郡, 使四道, 在人爲政之絕跡, 於公能事之常格, 故不足敍’ 省文之法, 皆此類也.”

27)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韓退之〈處州孔子廟碑〉: 夫子之聖, 後人不吝贊頌, 言愈多而愈贅. 韓退之處州孔子廟碑, 說天地百神之事, 尊奉之崇, 皆不及孔子, 只一辭結之曰: ‘其賢過於堯舜者 此其效歟’, 最是得體, 鹿門所以推爲第一.”

2. 엄선된 재제

이상수는 재제를 구성의 전제로 여긴다. 이는 육구몽의 <蠹化>에 대한 비평에서 찾을 수 있다. “만물을 표현한 솜씨가 상세하고 정교하지만 역시 ‘악업의 질서’라는 제제로 인하여 상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제제의 한계로 인하여 문장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것으로,²⁸⁾ 작품의 구성이 빛을 발하려면 엄선된 재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선된 재제란 무엇인가. 이는 孫樵의 <書褒城驛>에 대한 비평에서 찾을 수 있다. “‘驛’을 가탁해 천하의 폐단을 논설하니 참으로 有用한 文字이다.”²⁹⁾ 하여 ‘有用’이란 평어를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폐단의 실체를 밝혀 교훈을 전하는 주제의 성격이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그와 유사하거나 상반되는 비평과 비교해보자. 예컨대 유종원의 <貞符>, 이화의 <含元殿賦>, 이백의 <明堂賦> 등에 대해 그는 해당 작품의 뛰어난 구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군주에 대한 문채’라 군주의 덕망에 ‘무익’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두목의 <罪言>·<阿房宮賦> 등에 대해 그는 해당 작품의 주제가 ‘당대의 급선무’와 유관하고 ‘세태의 풍자’가 담겨 있어서 국가의 통치에 ‘유익’하다고 호평한다.³⁰⁾ 이로써 이상수가 강조하는 ‘유용’한 주제가 ‘국가의 치세’와 ‘군주의 덕망’에 유익한 교훈이 있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³¹⁾

이는 다르게 말하면 군주의 태도가 국가의 통치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즉 치세를 이룩하기 위해서 군주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간언하는 것이 유용한 주제가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상수는 劉蕡의 <對賢良方正直言極諫策>에 대해 “진정 나라의 선비라 하겠다. 직언으로 감히 간한 것이다. 천지에 타고난 인재가 극히 귀한데 다행히도 있었다. 좌절과 배척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니 이 백성이 어찌 자리를 잃지

28)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陸龜蒙(蠹化): 體物之工, 纖悉奇巧, 亦傷於疾惡”

29)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孫樵(書褒城驛): 借驛說天下之弊, 真是有用文字.”

30)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李華(含元殿賦), 廟堂冠冕之文, 李白(明堂賦), 又特爲雄傑爽朗. 然只以文采, 無深意也, 何也. 全篇馳騁, 不過尊其主軼唐虞, 而過之虛辭, 夸美近乎誕, 夸美之過近乎諛. 孰若杜牧(阿房宮賦)意在諷世也耶.”;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柳厚(貞符), 亦是頌體, 而其文古簡深黯. 然, 凡此等文, 於人主無補也. 只是贊嘆過, 則爲諛神聖道德義是堯舜動, 輒隨口便, 爲恒言人主, 習以爲當然禹湯以下蔑如也. …… 此不如杜牧(罪言), 猶或有關於世務也.”

31) 강명관, 앞의 2007 책, 15~19면 참조.

않을 수 있겠는가.”³²⁾ 하고, 辛替否의 <諫造金仙玉眞二觀疏>에 대해 “中宗의 覆轍을 일일이 들면서 말에 끼리는 바 없어서 군주로서 건디기 어려운 바 있으니 참으로 뼈鯁한 말이다.”³³⁾ 하여, 군주의 과실을 과감히 질책한 내용을 호평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陸贄의 <奉天請罷瓊林大盈二庫狀>에 대해 “利害를 가리켜 진언함에 절절히條鬯하니 어리석은 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덕종이 깨닫지 못하니 슬픈 일이다.”³⁴⁾ 하고, 杜牧의 <原十六衛>에 대해 “당나라의 군제가 이보다 좋을 수 없었는데 단지 어리석은 자 몇몇이 關石을 경솔히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부내의 병력이 안으로 와해되고 변경의 장수가 밖으로 중해지니 당나라가 비로소 혼란해진 것이다. 충신과 지사로서 강개하고 통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편은 그 利害를 일일이 서술하니 가히 다 갖추면서 조리가 있다고 하겠다.”³⁵⁾ 하고, 馬周의 <請崇節儉及制諸王疏>에 대해 “辭가 많고 條가 퍼서 군주를 쉽게 일깨운다. 대체로 천자가 제왕과 종실을 대함에 우애가 융숭하고 화목이 각별하여 누차 하사함이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마는, 唐宋의 군주들 역시 절제가 없어서 이것이 전부 백성에게서 나왔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님을 유념한 적이 없었다.”³⁶⁾ 하고, 杜牧의 <戰論>과 <守論>에 대해 “두목은 당나라 황실이 기강이 없어 절도사가 발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늘 분노를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戰論>과 <守論> 모두 당시의 폐단에 깊이 들어 맞는다.”³⁷⁾ 하고, 李德裕의 <三國論>에 대해 “군주가 권력을 하루도 잃어서는 안됨을 알 수 있다”는 대목은 군주에게 보탬이 된다.”³⁸⁾ 하고, 韓愈의 <雜說>에 대해

32)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劉蕡(對策): 眞可謂邦之彦兮, 直言敢諫者矣. 天地間, 生才極貴, 幸而有之, 摧折遏絕, 如恐不及, 斯民安得不失所乎!”

33)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辛替否<諫造金仙玉眞二觀疏>: 歷舉'中宗覆轍', 言無所諱, 有人主之所難堪者, 眞眞諒骨鯁之言也.”

34)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陸宣公<請勿置瓊林大盈二庫狀>: 指陳利害, 剴切條鬯, 雖愚人可曉, 而德宗不悟, 悲夫.”

35)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杜牧<原十六衛>: 唐之軍制, 莫善於此. 只因一二愚者, 輕壞關石, 府兵內罷, 邊將外重, 而唐始亂矣. 宜乎忠臣志士忼慨痛惜者也. 此篇, 歷敘其利害, 可謂該備而有條理矣.”

36)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馬周<請崇節儉及制諸王疏>: 辭多條暢, 使人主易曉. 蓋天子, 於諸王宗室, 友愛隆至, 敦睦殊異, 數有賜賚, 夫豈爲過, 而唐宋之君, 亦無紀極, 曾不念此皆出於下民, 非從天降而地湧也.”

37)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杜牧身見唐室不綱, 藩鎮跋扈, 常憤憤. 故<戰論> <守論>, 皆深中時弊.”

“사람의 맥을 가지고 나라의 기강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근본을 아는 말로 세상의 구제에 정미한 것이다.”³⁹⁾ 하여, 조정의 기강이 국가의 득실과 직결된다는 점을 가지고 군주를 설득하는 내용을 호평한 것이 그것다.

군주를 위한 조언이 치세를 이룩하는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 신하도 그 대상에 속한다. 예컨대 그는 權德輿의 <兩漢辭亡論>에 대해 “西京의 멸망을 張禹의 탓으로 돌리고 東京의 멸망을 胡廣의 탓으로 돌리는데 의리가 엄정하고 표현이 뛰어나서 다소 통쾌하다. 아첨하며 봉록이나 보존하는 무리들의 목을 움츠려들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하니 참으로 세교에 보탬이 될 만한 글이다.”⁴⁰⁾ 하고, 高適의 <後漢賊臣董卓廟議>에 대해 “사람을 통쾌하게 한다. 더구나 그 의의는 동탁의 죄를 극구 성토했던 것이라 굉장하다고 하겠으니, 당나라 조정에 있어서도 名臣이 되겠다.”⁴¹⁾ 하고, 王義方的 <彈李義府疏>에 대해 “표현이 추상처럼 엄하고 기세가 간담을 꺾으며 文字 또한 峻厲하니 범접할 수 없는 색이 있다. 참으로 당대의 名臣이다.”⁴²⁾ 하여, 조정과 군주의 안위를 위협하는 간신을 배척한 것을 호평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수의 비평이 유가의 ‘修己治人’의 창작론에서 나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컨텍스트 파악

이상수는 주제의 파악을 중시한다. 문장의 기교가 뛰어나도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적합한 구성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梁肅의 <西伯受命稱王議>에 대한 비평에서 찾을 수 있다. “사마천의 오류를 반박하니 識見이 있다고 하겠다.”⁴³⁾ 하여

38) 이상수, 『晤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李德裕<三國論>: …… 云: ‘由是而知人君不可一日失其柄, 尤有補於世主.’”

39) 이상수, 『晤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韓退之<雜說>: …… 第二首, 以人之脈, 喻國之紀綱, 是知本之言, 精於醫世者也.”

40) 이상수, 『晤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權德輿<兩漢辨亡論>: 以亡西京歸之張禹, 亡東京歸之胡廣, 義正辭勝, 多小痛快. 足使阿諛保祿之輩縮首知懼, 誠有助世教之文也.”

41) 이상수, 『晤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高適<毀董卓廟>: 令人爽快. 且其義極討卓罪, 可謂宏壯. 適在唐朝, 亦爲名臣.”

42) 이상수, 『晤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王義方<彈李義府疏>: 辭嚴秋霜, 氣折姦膽, 文字亦峻厲, 有不可犯之色. 洵一代之名臣.”

43) 이상수, 『晤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梁肅<西伯受命稱王議>: 駁太史公之誤, 可謂有識.”

‘識見’이란 평어를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識見’이란 무엇인가.

양숙의 <西伯受命稱王議>는 “시인이 평하기를 西伯 昌이 천명을 받은 해에 왕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虞와 芮의 송사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승하하자 시호를 문왕이라 하고 법도를 개정하고 정삭을 제정하였다.[詩人道西伯以受命之年稱王而斷虞芮之訟. 後十年而崩, 諡爲文王. 改法度, 制正朔矣.]”는 사마천의 『史記』 「周本紀」의 기록⁴⁴⁾을 반박한 논문으로, 武王의 商나라 정벌 이전에 그의 부친인 西伯이 왕을 칭한 적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에 이상수는 양숙의 설이 실증적 논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여겨 지지하면서 실증적 오류를 범한 사마천 뿐 아니라 주해서를 통해 그 진위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답습한 후대의 문인까지 비판한다.⁴⁵⁾

여기서 주안점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이다. 텍스트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흔히 문자를 지칭한다. 컨텍스트란 텍스트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맥락이다. 문제는 텍스트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앞서 사마천이 근거로 삼은 우와 예의 송사를 예로 들어보자. 서백이 덕치를 베풀자 사망의 제후들이 공정한 판결을 청하였다. 당시 우국의 사람과 예국의 사람이 서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나라를 찾았다. 그때 그들은 주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겨 서로 양보한다. 제후들은 이 일화를 듣고는 “서백이 아마도 천명을 받은 군주인 듯하다.[西伯蓋受命之君]”고 평하고,⁴⁶⁾ 후대의 시인은 이를 부연해 “천명을 받은 해에 왕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우와 예의 송사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표현한다. 사마천은 이 텍스트를 문면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양숙은 『周易』 「革卦·彖傳」의 ‘湯武革命’, 『中庸』 18장의 “무왕은 아직 천명을 받지 않았다[武王未受命]”, 『論語』 「泰伯」의 “(서백은) 천하를 삼분하여 그 둘을

44) 사마천, 『史記』 권4, 「周本紀」, “詩人道西伯蓋受命之年稱王而斷虞芮之訟. 後十年而崩, 諡爲文王. 改法度, 制正朔矣. 追尊古公爲太王, 公季爲王季, 蓋王瑞自太王興.”

45)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梁肅〈西伯受命稱王議〉: 駁太史公之誤, 可謂有識. 又引湯武革命及武王未受命二文, 以證文王未嘗受命, 尤爲明確. 此說, 本自不經注家, 動輒稱之, 以爲文王斷虞芮之訟, 是歲爲受命之年, 駁之是矣.”

46) 사마천, 『史記』 권4, 「周本紀」, “西伯陰行善, 諸侯皆來決平. 於是虞芮之人, 有獄不能決, 乃如周. 入界, 耜者皆讓畔, 民俗皆讓長. 虞芮之人未見西伯, 皆慚, 相謂曰: ‘吾所爭, 周人所恥, 何往爲, 祇取辱耳.’ 遂還, 俱讓而去. 諸侯聞之, 曰: ‘西伯蓋受命之君.’”

차지하면서도 은나라에 복종하였다.[三分天下, 有其二, 以服事殷], 『周易』 「明夷卦·彖傳」의 “내면은 문명하고 외연은 유순하여 큰 환란을 무릅쓰는 일을 문왕(서백)이 사용하였다.[內文明而外柔順, 以蒙大難, 文王以之.]”, 『史記』 「周本紀」의 “제후들이 모두 ‘주왕을 정벌할 수 있습니다’ 하니 무왕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아직 천명을 모르니 정벌할 수 없소!’[諸侯皆曰: ‘帝紂可伐矣.’ 武王曰: ‘汝未知天命, 未可也.’]”, 『書經』 「周書·武成」의 “우리 문고이신 문왕께서 능히 공을 이루시어 크게 천명에 응하여 사망의 중하를 다스리시니, 큰 나라는 그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그 덕을 그리워한 지 9년이 되었다. 그런데 대통을 이루지 못하고 별세하시니 나 소자가 그 뜻을 이었노라.[我文考文王, 克成厥勳, 誕膺天命, 以撫方夏, 大邦畏其力, 小邦懷其德, 惟九年, 大統未集, 予小子其承厥志.]”, 『禮記』 「大傳」의 “牧野에서 주왕을 정벌한 것은 무왕의 대업이었다. 대업을 끝마치고 물러나와 쉼을 태워 상제에게 고하고, 제사를 거행해 社에 고하며, 목야의 관실에 奠을 진설해 행주에게 고하고, 마침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하여 제기를 관장하고 몹시 분주하여 太王 亶父와 王季 歷과 文王 昌 등에게 ‘왕’의 칭호를 더하셨으니, 이것은 제후의 낮은 칭호로써 천자의 높은 자리에 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牧之野, 武王之大事也. 既事而退, 柴於上帝. 祈於社, 設奠於牧室, 遂率天下諸侯執豆籩, 逡奔走, 追王大王亶父王季歷文王昌, 不以卑臨尊也.]” 등 서백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검토해 “서백이 생전에 상나라의 제후로서 주왕을 섬겼지 왕을 칭한 적이 없었는데,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해 주나라가 천자국이 되고 나서야 문왕이란 시호를 받게 되었다”는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함의까지 파악해 “가령 서백이 왕을 참칭했다면 은나라의 역적이 되므로 공자가 성인으로 기리지 않았을 것이다. 서백이 비록 천자는 아니지만, 주나라가 천자국이 되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왕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⁴⁷⁾ 요컨대

47) 董誥 等, 『欽定全唐文』 권517, 〈西伯受命稱王議〉, “太史公曰: ‘詩人道西伯以受命之年稱王而斷虞芮之訟, 遂追王太王王季, 改正朔, 易服色, 十年而崩. 或謂『大雅』序文王受命作周, 『秦誓』序十有一年武王伐殷. 安徵二經, 以實其說. 予以爲反經非聖, 不可以訓, 莫此甚焉. 嘗試言之: 夫聖人無作, 作則爲萬代法. 蓋仲尼美文王之德曰: ‘三分天下有其二, 以服事殷.’ 又曰: ‘內文明而外柔順, 以蒙大難, 文王以之.’ 未有南面稱王, 而謂之服事, 易姓創制, 而謂之柔順. 仲尼稱武王之烈曰: ‘湯武革命.’ 又曰: ‘武王末受命.’ 未有父愛之, 而子復革命; 父爲天子, 子云未受. 當武王之會盟津也, 告諸侯曰: ‘汝未知天命, 未可以誓師也.’ 曰: ‘惟我文考大統未集, 予小子其承厥志!’ 執有王者出征, 復俟天命; 天統既改,

양숙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함의까지 읽어낸 것이다. 이상수가 식견이 있다고 극찬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수가 생각하는 식견이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의 함의 파악 내지 그 능력이라” 하겠다.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성향은 역사 비평에서 두드러진다. 東晉의 멸망을 분석한 楊夔의 <原晉亂說>에 대한 이상수의 비평을 보자. 그는 “江左에서 부진한 책임을 전적으로 王導와 庾亮에게 돌렸으니, 큰 식견이라”⁴⁸⁾고 평가한다. 여기서 江左는 東晉의 수도인 建康 일대를 가리킨다. 王導는 司馬睿를 옹립한 東晉의 개국공신으로서 司馬氏 삼대에 걸쳐 동진의 승상을 역임한 인물이고 庾亮은 司馬氏의 외척인데, 둘 다 동진 왕조의 강남 통치를 공고히 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전까지 사관들의 비판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양기가 동진이 부진한 책임을 그들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왕도의 무리가 清談을 추구하여 세속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귀족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하였다는 것이다.⁴⁹⁾ 또한 三國의 멸망을 진단한 李德裕의 <三國論>에 대한 이상수의 비평을 보자. 그는 “‘蜀의 정사가 黃皓에게 있음’ · ‘魏의 권력이 司馬懿에게 귀의함’ · ‘吳王이 궁중을 돌보지 않음’을 가지고 三國이 선후로 멸망한 증거로 삼은 것이 사리에 몹시 맞다. 단지 문장이 좋을 뿐 아니라 나라를 경륜하는 식견도 있다.”⁵⁰⁾고 평가한다. 이덕유는 蜀 · 魏 · 吳의 멸망 원인으로 黃皓, 司馬懿, 孫皓 등을 지목한다. 이들의 전횡에 의해

而復云未集。『禮大傳』稱：‘牧之野，既事而退，柴於上帝，追王太王王季文王，改正朔，殊徽號。’若虞芮之歲稱王，則不應復云追王，王制既行，則不應復云改物。是皆反經者也。夫大者天地，其次君臣，聖人知定位之不可易也。故制爲上下之禮，財成天地之道。使各當其分，而不相間，若億兆之去留，天命之與奪，則存乎其時。聖人順而行之，故謳歌有所歸，而舜禹揖讓，桀紂惡盈，則湯武放伐。所謂後天而奉天時，不得已而爲之者也。若殷道未絕，紂惡未極，而遂稱王，以令天下，則不可謂至德也，此其非聖者也。予以爲「大雅」作周之義，蓋取夫積德累仁，爲海內所歸往，武王因之，遂成大業；非所謂革命易姓爲作周也。「秦誓」紀年，蓋武王、周公追考前文陳王業之盛，自虞芮始，故斷爲受命之歲。仲尼憲章文武，故因而敘之曰十有一年武王伐殷，非所謂自稱王而爲之數也。文王既沒，經義斯在；如曰不然，以俟君子。”

48)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楊夔(原晉亂說): 以江左之不振, 專責導亮, 是大見識.”

49) 王導에 대해 魏伯珪 역시 ‘清談들의 말패가 드러난 풍속이 이와 같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魏伯珪, 『存齋集』 권14, 「格物說(尙論)」, 〈王導〉.

50)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以政在黃皓, 權歸仲達, 不見帷牆, 爲三國先亡後滅之證, 深中事理. 非獨文章爲好, 乃經國之識.”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멸망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텍스트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분석이다. 그러므로 문학과 역사에 대한 예리한 분석력은 폭넓은 독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수는 권덕여의 <岐國公杜公淮南遺愛碑銘> 비평에서 “唐宋代 재상의 비문은 正史의 本傳을 참고해 보아야 고찰할 수 있다.”⁵¹⁾ 하고, 두보의 <三大賦> 비평에서 “그 독서가 만권을 독파함을 보니, 그 광채를 당해낼 수 없다.”⁵²⁾ 하여 방대한 독서량을 식견의 비결로 지목한 것이다.

이처럼 이상수 비평의 특징은 창작에 동원된 간결한 구성, 엄선된 재제, 컨텍스트 파악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이상수의 비평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이상수의 <酷吏傳議> 비평을 보자. <酷吏傳議>는 사마천의 『史記』 「酷吏列傳」에 대한 권덕여의 비평이다. 권덕여는 “鄧都是 강직하되 잔학하지 않고 성내되 정도에 맞았다. 사마천과 반고가 그를 처음에 둔 것은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의리가 부족한 탓이다”고 하여, 선과 악이 공존하는 질도를 악의 서두에 둔 것을 사마천의 실책이라 여겼다. 반면 이상수는 권덕여의 설을 반박한다. 「酷吏列傳」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질도를 흑리의 서두에 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酷吏列傳」에 등장하는 흑리들과 그 면면을 보면, 흑리들이 전부 질도를 본받거나 그보다 심하다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로써 흑리들의 악행의 시초가 질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이는 작품의 구성과 내용 및 이를 둘러싼 컨텍스트 파악 등 창작 기법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없이는 불가능한 분석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수는 문학 비평에 있어 창작에 동원된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하고 창작에 역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상수의

51)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岐公淮南遺愛碑銘>: …… 唐宋宰相碑版, 皆當與正史本傳參看, 可以互相考覽.”

52)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杜子美<三大賦>: …… 見其讀書破萬卷, 光焰不可當.”

53) 이상수, 『嵒堂先生文集』 권20, 「唐文評(壬子)」, “權德輿<酷吏傳議>: ‘深稱鄧都, 剛而無虐, 怒而中節. 馬遷班固, 乃冠之酷吏傳首, 缺善善惡惡之義.’ 按漢之酷吏, 肩踵相繼, 皆由鄧都爲之倡, 迎合時主, 剝喪元氣, 太史公所深惡者也. 其冠於諸傳, 不無義理.”; 이현호는 이를 두고 유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脈理의 측면에서 비평한 것이라 정의한다. 이현호, 「조선후기 사기 비평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1, 104~105면 참조.

이러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창작과 비평의 실천은 단지 당송파의 아류가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조선후기 문학사를 이해하자면 그 핵심이 되는 당송파 문학의 수용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상수는 조선후기 당송파 계열의 문장가이다. 그는 농암계 문인과의 교유를 통해 당송파의 문학론을 습득하여 독창적인 문학론을 창안하고 독서와 작문에 실천한다. 특히 「唐文評」은 이상수의 문학관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당송파의 전범이 되는 당나라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창작에 동원된 논지와 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문학비평인데, 당송파의 문학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이상수 문학론의 정수가 반영되어 있다.

이상수 비평의 특징은 창작에 동원된 간결한 구성, 엄선된 재제, 컨텍스트 파악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간결한 구성이란 최소한의 언어량으로 최대한의 묘사를 해내는 것으로, 제재의 엄선, 유기적 조직, 정리된 표현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당송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엄선된 재제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창작의 단서가 되는 주제인데, 주로 ‘국가의 치세’와 ‘군주의 덕망’에 유용한 내용으로 유가의 수기치인에서 나온 것이다. 컨텍스트란 텍스트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맥락으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관건이다. 이러한 컨텍스트의 파악은 폭넓은 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법도가 있다고 여겨서 그 법도를 습득하면 우수한 작품이 된다는 논리가 당송파의 문학론을 계승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고문의 범주에 대우문을 포함시켜 그 중요도를 높이고, 당송파의 창작론을 비평에 적용시켜 컨텍스트의 파악에 바탕한 텍스트의 분석을 비평의 단서로 삼은 것은 이상수의 진일보한 창작과 비평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李象秀, 『晤堂先生文集』 1-4, 『韓國歷代文集叢書』 2643~2646, 경인문화사, 1999
- 林雲銘, 『增定古文析義』,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리리, 古貴3748-2
- 董誥 等, 『欽定全唐文』, 『續修四庫全書』 1634~1650
- 姚鼐 編纂 王文濡 校注, 『(音注評校)古文辭類纂』, 中華書局, 1973
-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96
- 魏伯珪, 『存齋集』, 『韓國文集叢刊』 124
-
-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 _____, 『농암잡지평석』, 소명출판, 2007
-
- 김채식, 「晤堂 李象秀의 山水論과 「同行山水記」 분석」,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지훈, 「18世紀 農巖系 文人の 文學論과 批評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 이향배, 「晤堂 李象秀의 散文批評論 研究」, 『어문연구』 56, 어문연구학회, 2008
- 이현호, 「조선후기 사기 비평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1

Review of Tang's Literature and Analytic Literary Theory of Sang-soo Eodang Lee

Shin, Jae-sik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y of embracing the literature of the Tang and Song Dynasties which is in the core. Sang-soo Lee is the Tang-Song style writ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 learned the literary theory of the Tang-Song school through the associating with literary people associated with Nongam and created his own original literary theory which he practiced in reading and writing. Especially, 「Review of Tang's Literature」 is a typical work that fully represents Sang-soo Lee's literary view. It is a literary review which analyzed the literary works from the Tang Dynasty, which becomes the predecessor of the Tang-Song School, in two aspects: the thesis and composition, and it reflects the essence of the literary theory of Sang-soo Lee who succeeded to and further developed the literary theory of the Tang-Song School.

The characteristics of Sang-soo Lee's review can be generally summarized into concise description, select theme, and context identification. Concise description means to describe maximum by using the least amount of language, and it undergoes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the careful selection of theme, organic composition, and neat expression, which are influenced by the Tang-Song School. Select theme is the carefully selected theme that becomes the clue for creation, and it was mainly the contents useful for 'State Governance' and 'Moral Influence of the Monarch' from the idea of 'cultivating oneself before appeasing others' in Confucianism. Context is the matter of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theme of the literature based on the circumstance in which the text is formed. Identifying the context requires extensive reading.

The logic that there is a certain custom in literature and any author who masters that custom can create excellent literature is no doubt the legacy of the literary theory of the Tang-Song School. However, including antithesis in the category of ancient Tang-Song literature to increases its significance and applying the creative writing theory

of the Tang-Song School in reading to use the analysis of text based on context identification as the clue for criticism and creation are from Sang-soo Lee's own analytical literary theory. This demonstrates the substance of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Tang-Song School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 Late Joseon Dynasty, Literature, Tang-Song School, Nongam Associate, Sang-soo Lee, Review of Tang's Literature, Analytic Literary Theory